

당신의 모이 되어...

김경렬

성모 병원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10여년 동안 말기암 환자들과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었지만 언제나 첫 만남의 환자를 방문할 때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긴장이 되기도 하여 조심스레 방문을 노크하게 된다.

98년 3월 성남에 거주하는 말기 간 경화 환자를 처음 만났다. 나이는 51세.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잔뜩 긴장이 되었다. 환자는 깊은 혼수 상태로 호흡이 곤란하였으며 황달과 부종도 심한 상태였다. 옆에서 바라보기도 힘든 모습이었으며 부인은 환자를 흔들며 "눈 좀 떠봐요" 하며 울부짖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다. 순간 환자보다는 부인을 돌보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우선 부인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시작하였다.

환자는 전날 밤 간성 혼수로 응급실에 와서 입원을 했으며, 열심히 가톨릭 신자로 레지오 활동까지 한 환자였다. 슬하에 고 3인 아들과 중학생 딸을 두고 성가정을 이루며 부인과 열심히 살아왔다. 얼마 전부터는 늘 피곤해 하여 동네 병원에 진찰을 받은 결과 과로로 인해 간이 나빠졌으니 무리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 간장약을 사다 먹기만 했다고 한다. 사느라고 바빠서 종합병원에도 한 번 못 가보고 무심하게 병을 키워 이 지경이 되었다며, 착하다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느냐며

호느꼈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게 살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도 안타깝고 답답했다.

간병하는 부인에게 짐작하게 대처해야함을 당부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해야할 일들도 생각해 두는 것이 부인을 위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부인에게 위안과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고 헤어졌다.

두 번째 방문을 하였을 때 환자는 황달과 부종이 더욱 심해 있었으며 피부색은 약간 흑색을 띠고 있었고 고통스런 숨소리가 금방 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간병하는 부인에게 환자가 심하게 혼수 상태가 왔지만 간혹 청각이 열려 주위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했더니 "정말이냐?"고 묻고는 갑자기 환자의 몸을 부둥켜 안고 "아이고 여보, 정신 좀 차리세요"하면서 호느끼는 것이었다.

남편의 청각이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 한참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호느껴 울었다. 그리고는 민망했던지 나에게 미안하다며 의자를 권하였다. 환자는 첫 만남 이후 계속 혼수 상태이었으며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하였다. 내가 부인에게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니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아 자리를 뜰 수가 없다

고 하였다. 불일이 있으면 자리를 대신 지켜드릴 수 있다고 하였다니 전화로 아들(고3)을 불렀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오면 가능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빠의 귀에 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박또박 들려 드리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혹시 친인척간에 용서를 주고받고 화해할 일이 있다면 부인께서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당부 드렸다. 환자가 그런 사실을 들을 수 있다면 상당히 편안해 할 수 있다고 했다니, 시누이와 금전관계로 사이가 나빠져서 남편이 입원하기 전에 매우 언짢아 하였으며 아내에게 잘 지내도록 부탁까지 했다고 하였다.

나는 부인 스스로 화해하고 용서하겠다는 실천의 의지를 보여서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봉사자를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글썽거리기에 어깨를 쓰다듬으며 환자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였더니,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날은 부인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도를 특별히 해드렸다.

세 번째 방문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나면서 혹시 선종하시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하니 환자는 고통 중에 있었다. 병실을 들어서니 건장한 청년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으며 환자는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모습은 더욱 여위었고 흑달로 변해있었다. 가끔씩 가쁜 숨소리를 내며 토하듯 길게 내뿜곤 하였다.

건장한 청년은 고3 아들이었다(넋을 잃고 서 있었다). 아버지의 악화된 모습에 충격이 컸다면서 금방 돌아가시지는 않겠는지요 하고 묻는다. 나는 “그일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준비는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며 조심스레 아들과 대화를 시작하였다. 아버지 귀에 대고 하고 싶은 말을 들려 드리도록 권했더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 지 모른다고 하였다.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아들을 믿고 안심하시라는 말을 하도록 권하였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아버지가 제 말을 알아들으실 수 있을 까요” 라며 반문하였다. 그렇다고 힘있게 대답해 주었더니 불안하고 우울하던 모습이 안심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였다.

우선 집에 가면 본당 연령회에 연락을 하도록 알려주었으며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뵈게 해드릴 분이 있으면 꼭 알리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아버님이 생전에 누구에게 신세와 폐 끼치시는 것을 싫어하셔서 친척들도 입원하신 것을 모르는 분이 많다고 하였다. 장지는 고향 선산으로 모실 것 같다고 말하기에 역시 장자다움이 보여 믿음직스럽다고 칭찬해주며 아버님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고 말하니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시므로 위로도 해드리고 아들로서 잘 하도록 당부한 뒤에 함께 기도를 하고 헤어졌다. 돌아오는 내 마음은 무거우면서도 한편 뿌듯함을 느꼈다. 그 날은 부인보다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었다.

이튿날 환자가 집에서 선종하시길 부인이 원해서 호스피스 과장 수녀님이 동행하여 성남에 있는 자택으로 퇴원을 하였다. 그날 밤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의 방문을 받았으며 레지오 단의 기도 속에 임종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복 받은 임종 순간임을 느낄 수 있었고 미망인도 상당히 위안을 받은 듯 하였다.

장례와 삼오제 등 모든 일을 치른 후에 미망인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앞이 막막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으며 순간순간 남편의 숨이 끊어질까 전전긍긍하던 차에 자매님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특히 귀가 열려 있다는 자매님의 말에 남편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말과 시누이와 잘 지내겠다는 말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위안이 되었다고 하였다. 미망인은 이전 남편 뒤편까지 아이들을 잘 돌보고, 열심히 살다가 몇몇 하게 남편을 만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그 후 1년여 전화를 주고받았으며, 미망인은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었다. “아무에게도 고통스럽고, 외롭고, 가슴 답답함을 털어놓을 수 없었음이 더 괴로웠다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할수록 의무감과 책임감에 중압감마저 느낄 때가 있지만 때때로 가슴 저미는 아픔마저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며 겸손해지는 나를 만난다.

그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돌아올 때가 더 많았으며 교만스럽던 나 자신의 사고와 생활관과 삶

의 가치관까지 바꿔 놓을 수 있었음에 먼저 가신 여러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녕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스승으로 생각되어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99년 10월에…

어린이의 기도

주님, 당신은 해 저물 때 쓸쓸하지 않게
노을을 만드셨고

구름을 은빛으로 장식하였으며
새벽에 맺히는 이슬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국화와 장미의 꽃잎을
만드셨으니

마지막이 가까운 어린아이에게 당신의
용기를 주소서

나의 이 미천한 기도를 들어 주시어
반짝이는 날개 달아

아름다운 것들을 향한 감사로 가득한
천국으로 인도 하소서

- Kathleen Partridge의 치유를 위한 기도에서 -